

7월 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소신공양 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고 4대강 개발 중단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구제에 수행자 진면목 있다

사회적 현실적 괴로움은 개인적인 고난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역시 당연히 포함한다. 출가는 사회로부터의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 출가자는 단순히 출가자가 아니다. 대승불교의 출가자는 보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살의 진면목은 서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우리 민족의 귀의처가 되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부대중 갈럼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사찰과 NGO 손잡다

회(시장)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현재 세계적인 정치변화의 방향이 통치(統治)에서 공치(共治) 또는 협치(協治)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60~70년대 산업화에 성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성지관음회, 성지관음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말미암아 개인의 삶이 철저히 사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 구조의 약화나 환경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개인과 사회에 요구하게 된다.

오늘의 시국선언은 몇 가지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첫째는 개인적인 고통이든 사회적 고통이든,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출가보살의 서원이 굳건히 살아 있음을 발견해서이다.

필자는 사회적 구제에 수행자의 진면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전제가 따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전제란 다름 아니다. 동체대비의 넓은 정신은 중생을 보듬어 안는 데 있어서 잘난 중생 못난 중생, 고운 중생 미운 우생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이 불교적 신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에서도 신생활의 폭을 넓혀서 법회와 교리 공부 외에 불교적 입장에서 현실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여성불자들이 관심분야를 확장하고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 자녀 교육의 부담을 어느 정도 마친 중년여성으로 자녀양육으로 단절되었던 사회와 새롭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연령층이다.

사설

조계종 5000 승려의 선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소속의 5000여 승려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했다. 조계종 승려의 절반 정도가 선언에 참여했다.

에도 한발짝 물러날 명분을 주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시범 추진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안이다.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문화일보, 6. 28)를 보면, '반대의견을 수렴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답이 69%로 가장 많았다.

불교공약 완료 시기 밝혀야 한다

다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절반을 지난다. 본지가 이 대통령의 불교공약 이행을 조정한 결과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공약은 빌 공자 공약(控約)'이라 불리는 조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정치 협조성을 유발했다. 임기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형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세인: 최낙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